



이사장 이 미 영

긴장과 설렘으로 보낸 3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교실 창 밖을 바라 본 것 같습니다. 목련이 목을 빼고 배시시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애들아 창 밖을 봐” 하니 아이들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번지네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지요?

우리 문화원에서도 지난 3월엔 청소년 문화 유관 단체들과 함께「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주말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5일제 수업은 학교가 주로 담당하였던 학생들의 교육 과정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시키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아이들이 토요일을 학교 안보다 학교 밖에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의 풍부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자면 우리 문화원이 앞장서서 지역사회 문화 예술단체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연두 빛 4월, 문화원 회원과 교육 가족들도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과 더불어 우리 어른들도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학습이 필요하지요. 이를 위해 문화원에서는 행복한 걷기여행과 알찬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봄 향기 물씬 나는 들길을 함께 걸어보시지 않으실래요? 그리고 문화원이 개설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반갑게 만나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마음을 활짝 열고 얘기해봅시다.

그럼 좋은 날들 되십시오.

2012년 4월

심는순서

- 02 인사말 / 이미영
- 03 역사·문화 함께 하는 걷기 “아름다운 순례길 - 원평에서 수류성당까지” · 장재성
- 04 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 발족식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약식
- 05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회원등록
- 06 교단일기 - 책으로 날개 달고... 만세!!! · 안수미
- 07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역사 · 문화와 함께 하는 걷기

아름다운 순례길 - 원평에서 수류성당까지

- 4월 7일(토) 김제 원평길 -

장재성 이사(전주서중 교사)

지난 4월 7일 우리 문화원에서 걷기 행사를 가졌다. 2월부터 기획한 걷기는 익산 무왕길에 이어 정읍 대장금길을 다른 팀들과 함께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문화원이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실시했다.

어린이 1명 포함 19명이 참석했던 이번 걷기는 전라북도가 추천하는 [아름다운 순례길]의 하나로 원평에서 수류성당까지 약 8km 정도의 편도 코스이다. 원평은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증산교 등 여러 종교를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곳이다. 오전 9시 도착 주차장과 9시 30분에 원평에 있는 금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 일정을 시작했다. 안내는 송승용 부원장이 맡아주셨다.

출발지는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인 금산고교였다. 하천을 건너면 3.1 독립만세 기념비가 있는데 원평장터에서 벌인 만세 운동을 기념하고자 주민들이 세운 비석이다. 가까이에 의열단원 이종희님의 생가가 있고, 1894년 우금치에서 패배하여 후퇴하며 일전을 벌였던 구미란 갑오농민전쟁 전투지가 있다. 구미마을이다. 언덕을 한바탕 돌고나서 학수제에 올라갔는데 원평이 자랑하는 농민군 지도자 김덕명 장군 기념비가 있다. 이곳에는 이종희님의 기념비도 있는데 지역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안내자의 의미 있는 말씀이 있었다.

이어 원평 버스터미널로 가서 하루 여섯 번 있는 화율리행 마을버스를 타고 화율초등학교에 갔다. 화율초는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과연 그런 모습이였다. 멋지고 아름다운 학교를 뒤로하고 되돌아올 지점인 수류성당에 도착했다. 수류성당은 1890년대 호남 천주교의 3대 성지이며 지금도 그윽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다.

오는 길에 산길로 돌아오면서 막 짙을 밀어내고 있는 초록이나 야생화와 함께 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수류성당에서 원평까지의 직선 도로를 택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원평에서 한우 비빔밥을 먹고 헤어졌다.

송승용 선생님은 화율초등학교를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시킨 장본인일 만큼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해 오신 분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느라 시간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지역에 밀착된 해설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씀씀이를 볼 수 있는 훌륭한 안내를 해주셨다. 문화 유적을 잘 해설하고 역사적 사실을 재미있게 안내하는 것도 일품이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참으로 의미 있게 들었다.

수류성당에서 원평까지는 동진강의 수원에 해당하는 개울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걷기를 통해서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다. 그 아름답고 아무 문제가 없는 하천을 개선 공사당시고 다 파헤치고 있었다. 파헤쳐지고 더럽혀져 사라진 먹이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왜가리를 보며 다들 하천을 직선으로 만들고 기계로 파헤치는 모습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다음 일정은 5월 5일 무주로 정했다. 박종관 선생님과 함께 오전에는 염색체험을 하고 오후에는 걷기를 하기로 특별한 일정을 잡았다. 사람이 많으면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며 많은 희망 있었으면 한다.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우리 문화원에서 준비한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하여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고 실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법과 사후 처리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연수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4월 26일(목)~ 2012년 6월 28일(목)까지 (10회, 31시간 - 매주 목요일)
- 장소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
- 대상 : 중등교원 및 전문직 40명
-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 문화 이해를 위한 맞춤형 직무연수” 교육과정 운영 계획

시 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날 짜	18:00~18:50	19:00~19:50	20:00~20:50	21:00~21:50
4.26(목)	전공 : 집단상담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 조한일 (논산대건중 교사)		
5.3(목)	교양 : 학생 인권의 이해	- 송기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		
5.10(목)	교양 : 청소년 심리의 이해	- 이호준 (전주대 심리학과 교수)		
5.17(목)	전공 : 학교폭력 딜레마 상황 극복과 교사의 역할	-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		
5.24(목)	전공 : 부적응 학생 지도	- 정진규 (광주 침단중 교사)		
5.31(목)	전공 : 마음공부를 통한 관계 맺기	- 정원심 교무 (원광여고 교사)		
6.7(목)	전공 : 청소년 성 문화와 성 이해	- 염귀녀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6.14(목)	전공 : 미술치료를 통한 학교폭력 치유 프로그램	- 신성숙 (디딤돌행복연구소장, 한일장신대 겸임교수)		
6.21(목)	전공 : 학교폭력 상담의 원리와 실제	- 김진호 (군산청소년상담센터 소장)		
6.28(목)	전공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제	- 서진용 (입암중 교사)		

- 참가 신청 방법
- 문의 : 유인선 선생님 (010-8709-1004) / 사무처 (063-905-0218)
- 도교육청 공문으로 발송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하합니다

지난 3월 **주중일**(전북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회원께서 득남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예쁘게 키워주세요.

조인향(전주금평초) 회원님께서 3월 6일 건강한 첫아들을 낳았답니다. 이제 엄마가 되셨군요. 축하합니다.





책으로 날개 달고... 만세!!!

안수미 (관촌중 교사)

벌써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국어교사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서관을 맡게 된 것이.

처음엔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보다 전망 좋은 도서관 공간을 갖게 된 것이 좋았다. 어려서부터 헌책방을 하나 가져서 책이 쌓여있는 구석에서 책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책을 대출해 주고 반납만 받으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의 “우리 학교의 노력중점 사업이던데 독서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이 한 마디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이 때부터 아무 계획도 대책도 없이 안일했던 나는 독서교육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마주하게 되었다.

우연찮게도 나는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를 받던 중, ‘책만세’ 최봉석 선생님의 강의에서 해결책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책만세’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부지런히 ‘책만세’ 모임에 나가서 독서교실, 독서캠프를 이끌어 가는 방법을 보고 배우면서 학교로 돌아와서 따라하기를 1년. 욕심을 부려 9100만원 예산의 독서교육지원금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900만원 예산의 독서교육 행사를 계속 하려니 너무 힘들었다. 언제까지 무슨 책을 읽어야 하지, 뭔가를 주문해야 하지, 아이들이 그 책을 읽도록 계속 독려해야지, 행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해야지.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다. 산 너머 산이라고, 한 행사 끝나기도 전에 다음 행사를 준비해야 해서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러나 힘든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했다. 얻은 것이 정말 많았다.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과도 책을 통해 더욱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좋은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그 느낌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책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더해져 서로 더욱 좋은 느낌으로 믿고 마음을 열 수 있었으며 교육에도 효과적이었다. 또한 치유 효과도 많이 보았다. 시골에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과 떨어져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존감이 낮고 어두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내면의 힘이 길러

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2학년 초 담임을 맡을 당시 늘 혼자이고 말도 없고 도서관에 와서 책읽기만 좋아하던 슬이와는 책을 통해 대화하고, 쓴 독후감을 칭찬하면서 마음을 열어 나갔고, 독서골든벨 퀴즈 수상을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하더니 3학년에 올라가서는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져 내게 뿌듯함과 교육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또 문학기행과 작가초청강연 등을 준비하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마련하는 능력도 많이 커져서 이제는 웬만한 일은 겁이 나지 않는다.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뭔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다. 그 자신감의 뒤에는 늘 ‘책만세’가 있다. 국어교사로서 책을 너무 안 읽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나에게는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책만세’ 모임이 정말 고맙고 필요해서 계속 나갔는데 이제는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책만세’ 선생님들께 여쭙봐야지,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주셔서 마음이 편하다. 함께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책만세’를 통해 몸소 알게 되었다. 또한 그 분들의 좋은 수업 방법,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들이며 나는 정말 많이 배우게 된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자꾸 나태해져 가는 나를 채찍질하고 다시 새롭힐 수 있게 해준다.

‘책만세’와 ‘나’, 책으로 맺은 인연이라 더욱 향기로운 것 같다.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와 동흥 탁아소 등지의 북녘 어린이들에게 콩우유 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제공 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 약 200구좌(매월 100만원) 정도를 매 월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 장재성(010-4655-9803)의 메일(rudnf78@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 름	회 원 (), 후원회원 ()		
생 년 월 일	(남, 여)		
직 업 / 직 장	담당 업무(교 과)		
직 장 전 화	집 전 화		
손 전 화			
E - mail 주소			
직 장 주 소			
자 택 주 소			

예 금 주	주 민 등 록 번 호		
월 이 체 액	회비 1만원 + 후원금() 만원	CMS 자동이체 여부	예(), 아니오()
계 좌 번 호	(은행명)		

* 관심 분야(2개 √ 표)

()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인권 · 복지	() 청소년 문화 · 동아리
() 독서교육	() 초등교육	() 통일 · 역사
() 지역교육 · 교육자치	() 환경 · 생태	() 학급운영
() 진로 · 상담	() 성교육	() 학부모교육
() 인터넷 · 정보	() 학교운영위	기타()

2 0 1 2 년 월 일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과학연극 공연

“모두 모여 힘 세상” 안내

어린이/청소년들의 과학 감수성 함양을 위해, 과학 전문 연극 단체를 초청하여
초등학생(4~6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한 무료 과학 연극 공연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 ◆ 대 상 : 초등학생(4~6학년) 250명, 중학생 250명
- ◆ 일시 / 장소 : 2012. 4. 20(금) /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

초등학생	오후 2시 ~	과학 연극 공연 / 과학 키트 증정
중학생	오후 4시 ~	과학 연극 공연 / 과학 키트 만들기 체험

- ◆ 무료 관람 공연 : 사전 신청자에게 과학 키트 무료 제공
- ◆ 주 최 :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 주 관 : 사)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 <극단 사이꾼>
- ◆ 신청 / 문의
(사전 신청 인원 많을 시 선착순 마감. 한 학교에 신청자 편중 시 사전 조정)
• 제출방법 : E-메일 또는 Fax [신청서 양식 : www.blue21.or.kr 에서 다운로드 사용]
• 제 출 처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063-905-0218 / Fax 227-0650 / jb-blue21@daum.net)
- ◆ 공연 내용 : 빛의 반사와 혼합, 난반사, 구름의 생성 원리[공연(45분)+질의응답(15분)]

- ◆ 참고 사항
- ※ 과학연극 나눔 봉사활동 <극단 사이꾼> 공연의 특징 : 전문 과학강사로 이루어진 과학연극 팀. 공연 후, 배우로 등장하는 과학전문가에게 직접 연극 소재 과학 원리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과학 오개념 바로 잡음. 가족과학연극 형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과학 원리를 풀어감.
- ※ 사)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KASC) : 전문 과학커뮤니케이터들이 과학 대중화를 위해 쉽고 정확하며 깊이 있는 과학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생활과학교실 연계 우수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과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쉽고 친숙한 방법으로 과학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 <과학연극 나눔 봉사활동> 진행.

희망 2012,

제1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6·15 남북정상회담 12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 고취를 위한 '희망 2012, 제12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2012. 6. 2(토) 전주대학교

[초·중·고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 09:30~12:30
[교교생 3:3 길거리 농구대회] 09:00~16:00



새남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55-8(3층)
☎ 063) 905-0218 / Fax 063) 227-0650